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3월 22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수질하천과	담당자	• 생활용수팀장 윤혜용 ☎440-3631 • 담당자 김선아 ☎440-36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올해 개축 공중화장실 8개소에 16억2천만 원 투입 -
-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돕는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개축 사업 예정인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나이, 국적, 신체 조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보·서비스 등을 실현하는 디자인 방법론으로 시는 지난해 신·개축 공중화장실 9개소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16억2천만 원(군구비 포함)을 투입해, 4개 군·구(강화군, 옹진군, 중구, 남동구), 8개소의 개축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그림문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누구나 공중화장실임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내부 배치 및 설비를 파악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판도 설치한다. 또한 화장실 내부에는 높이가 다른 세면대와 손잡이가 긴 수전을 설치해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

특히 촉지도식 화장실 설비 안내표지판은 시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등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변기 칸막이마다 비상벨을 2개 이상 의무 설치하고, 화장실 외부에도 위급 상황임을 알릴 수 있는 경광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법적기준을 적용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로 영유아 동반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사진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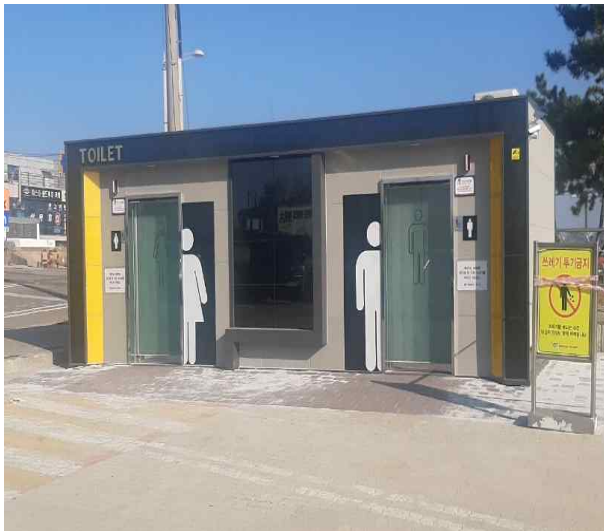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단차가 있는 세면대



손잡이가 긴 수도꼭지



대형 그림문자 안내표지판



비상벨 설치(2개)